

장기불황!

물량 감축 등 근본적인 방안 모색 절실

◇ 정리 / 김동진 차장/기자
(dj@poultry.or.kr)

국 내의 양계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모든 양계산물이 생산비선 이하의 가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양계장들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7년에 경험했던 IMF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란업자들은 소비 홍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1원운동' (자발적 기금모금 운동)에 적극 나서는가 하면, 육계인들과 종계인들도 어려운 실상을 알리고 불황의 원인 규명을 통한 대책방안 모색, 소비촉진운동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지난 2월 6일 긴급 종계부화분과 소위원회를 통해 대두되기 시작한 육계, 종계업계의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육계, 종계업계의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장기불황 어디까지 갈 것인가?

육계와 병아리 가격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생산비선 이하를 기록한 이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과연 이 같은 불황의 끝은 어디일까?

2001년도 원종계 수입수(우우기준)는 167,913수로 2000년 이전에 수입되던 수준(8만수 정도)의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지난해는 150,836수가 수입되었고, 금년도에도 2001년도와 비슷한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도 생산될 육용종계 생산잠재력은 6,856천수로 지난해(5,982천수)에 비해 14.6%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 9, 10월에는 원종계 입식을 기준으로 종계 분양 총 생산잠재력이 사상 유례없는 수치인 700만수대 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4년도 복경기 육계가격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계업계는 물론 육계업계까지 장기 불황에 몸살을 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식된 종계는 482만수로 적정 종계사육수인 400만수대 보다 80여만수가

과잉생산되었으며, 이같은 물량은 지난해 말부터 실용계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용계 가격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문제는 근본대책을 찾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같은 과잉생산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수입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육계, 종계인들은 엄청난 출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일부 육계농장에서는 1년여동안 병아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으며, 종계장에서는 신계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기 도태를 시키는 등 종계 도태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2. 병아리 구매 계약변경, 종계인들 반발

육계업과 종계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월 23일 계열업체들은 그 동안 일반 종계장들로부터 평균적으로 250~450원의 상하한선을 정하여 병아리를 구매하던 것을 앞으로 계약이 끝나는 종계장으로부터 일반시세를 적용한다는 '병아리 계약물량 상하한가 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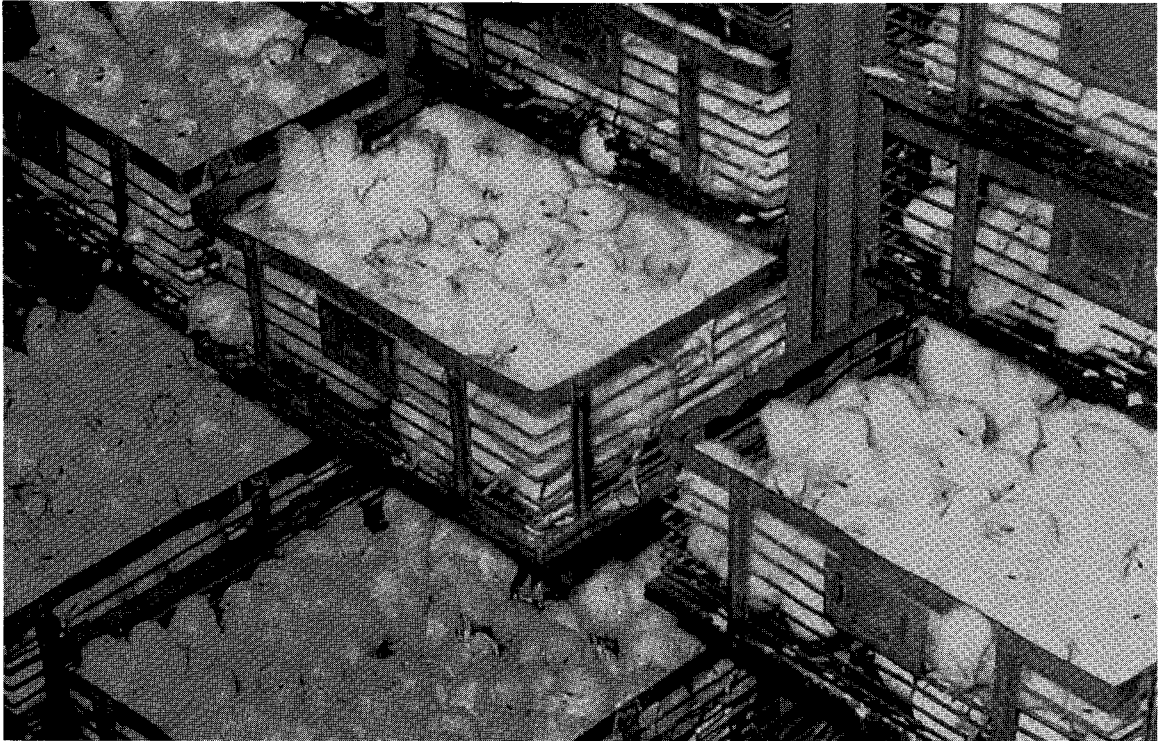
지'를 공식화하면서 종계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문제를 시발점으로 종계인들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고 그 동안 붙어져 왔던 계열업체들과의 관계까지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계열업체들이 주장한 '병아리 계약물량 상하한가 폐지'는 이 제도가 생산과잉을 부추기고 있어 물량조절을 위해 시장 원리대로 가격을 적용시켜 나가기로 했다는게 계육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종계인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계열사들이 물량을 앞세워 일반 종계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곧, 계열업체들도 육계업의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 지난 2월 6일 개최된 긴급 종계부화분과소위원회(최근 업계의 어려움이 계육협회, 정부의 불신으로 확대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계열업체들은 육계농장에 까지 종계를 사육하는 등 자체종계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일반 종계장들이 사라져야 계열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종계인들은 해석하고 있다. 또한, 일부 계열사들은 계약폐지를 공포한 이후에도 계약가격을 정해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계열업체들간에도 서로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고 일부 힘있는 계열사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일반 종계인들은 평가하였다.

병아리 계약시 상하한가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95년도 병아리 가격이 고가를 형성할 무렵 계열주체들이 병아리를 구하기 힘든 시점에서 상하한선을 정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가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

였으나 IMF이후인 1999년도 병아리 가격이 장기간 낮게 형성되자 많은 종계장들이 계열사들과 계약관계를 맺으면서 병아리 가격 상하한선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르게 되었다. 따라서 계열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폐지하는 등 일괄성이 없는 행동은 종계업자들로 부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3. 계열사, 정부에 대한 불신 확산

현재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생산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종계인들에 의하면 지난해 80만수의 종계가 증가된 근본적인 원인은 계열업체들이 사육수를 늘린데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증가시

킨 만큼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하반기 실시했던 40여만수의 종계감축시에도 계열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의지가 없을 경우 사태를 수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종계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물량감축 운동과 연계하여 일반 종계업자들을 배제하고 장기불황을 조장하고 있는 (주)하림과 그동안 계열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온 정부관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해 나가기로 지난 2월 6일 종계부화분과소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으며 12일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육계업계의 어려운 실상과 현실정을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빠른시일내에 (주)하림과 정부를 대상으로 '불황타개 방안모색'을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즉, 정부에서도 계열화 육성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을 통해 계열업체를 지원한 결과 생산자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이제는 계열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생산자들만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불거져 나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안)에서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키로하는 사업을 종계와 산란계는 대한양계협회에서, 육계는 계육협회에 위탁하는 초안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단체가 아닌 닭고기 가공업체들의 모임체인 계육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육

계인들과 연계하여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4. 수수감축 통한 방안모색을

금년 3월부터는 병아리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반 육계, 종계업계는 물론 계열업체까지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계열업체들과 일반 생산자들이 뜻을 같이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늘어난 물량을 적정선으로 되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 종계업자들은 감축운동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감축운동을 여러차례 전개했지만 계열업체들의 참여 부족으로 계열업체만 도와준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경제 논리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일반 종계업자들까지 보호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야하며, 업계의 심각성을 배제하고 회사의 존립만을 위해 일반 사양가들을 외면해서도 안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자금도 투명성 있게 쓰여질 때 진정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흡수하여 육계산업과 육계인을 살려가기 위해 원종계·종계업계, 계열업체, 육계생산자들이 한배를 탄 만큼 지금까지 잘못되어오고 있는 부분은 이 기회를 통해 반드시 규명을 해야하며, 이와함께 사육수수감축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육계업계 내에 형성되어 있는 기본 흐름이다. **양계**